

서울 중·고생 교통비 연 16만원 지원… 교육비 부담 낮춘다

서울교육청, 공약추진위 백서 전달
중·고생 16만4000명 지원 검토
초·중 체험학습비 최대 10만원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추진
세부과제는 현장 검토 거쳐 확정

정근식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학교의 심리·정서 안전망은 강화한다. 향후 4년간 중·고등학생 등교 교통비를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하고,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공약 추진 방향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의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5대 영역, 15개 약속,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공약 이행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중·고등 학생에게 평일 수업일 등교 교통비를 하루 한 차례,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2기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시스

는 방안이 제시됐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약 16만4000명이 지원 대상으로 추산됐으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62억원이다. 특수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은 별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가우동행카드나 티머니 등 기존 교통카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생이 등록한 교통카드의 평일 오전 등교 시간대 이용 내역을 확인해 지원하거나 사후 환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급 해소, 학교 밖 청소년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초·중학생에게는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한다. 2027학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해 2030학년도까지 대상 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도 강화한다. 전문상담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심리·정서 치료를 확대하는 한편, 마음건강 플랫폼을 통해 예방·개입·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중 학습안전망과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강화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유아교육의 생애 첫 기본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과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서울형 교수학습 플랫폼 'SEN스쿨' 고도화 등이 담겼다.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서울' 생태계를 구축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예술·체육 활동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생태전환교육 전면화와 농촌 유학 활성화, '서울형 부모학교 365' 및 권역별 부모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교육 자원 연계 플랫폼 운영 등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했다. 기본교육은 교육기본권의 범위를 유아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평생학습까지 넓힌 개념이다. 협력교육은

교실과 교육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대를 통해 경쟁을 넘어 포용과 협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교육지표를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로 확정했다.

다만 백서에 담긴 세부과제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제별 추진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학생·교사·학부모·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대토론회를 열어 공약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김재형 공약추진위원장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교육비전과 정책 제안이 서울교육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백서에 담긴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제안을 소중히 살피고, 학교 현장의 여건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서울교육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김수정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주택공급 속도… 착공44%·인허가6% ↑

착공 1만9507호, 3년 평균 웃돌아
정비사업 착공, 아파트 81% 차지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크게 늘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올해 들어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공사 단계에 들어간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사업 현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863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987호보다 6.1% 증가했다.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948호와 비교하면 36.7% 늘어난 규모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3,480호로 전년 동기 2만3,852호보다 1.6% 감소했지만 최

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8,395호보다는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9447호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허가를 받은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호), 독바위역세권(1481호), 한남5구역(2592호), 가재울7구역(1426호), 잠실주공5단지(6411호) 등이다.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35호보다 64.4% 늘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2553호와 비교하면 101.9% 증가해 두 배를 넘어섰다.

실제 주택 건설에 들어간 착공 물량의 증가폭은 더 컸다.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은 1만9507호로 전년 동기 1만

3508호보다 4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4497호와 비교해서도 34.6% 많았다.

아파트 착공은 1만499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 늘었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 착공은 1만2211호로 전체 아파트 착공 물량의 81.4%를 차지했다. 올해 착공한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로는 흑석11구역(1515호), 신림2구역(1430호), 중계본동(3178호) 등이 있다.

비아파트 착공도 451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4호보다 80.9%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3043호와 비교하면 48.3% 많았다.

서울시는 인허가와 착공 증가세를 실제 입주 물량 확대에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7호선 장암역 내달 한 달간 문 닫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결공사
도봉산역~장암역 무료 셔틀 운행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에 따라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암역 휴업 및 대체교통수단 마련' 계획을 발표하고, 이 기간 도봉산역환승센터~도봉차량기지 정문~장암역 정류장 구간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배차 간격은 평일 7~15분, 주말과 공휴일 10~20분이다. 도봉산역에는 현장 안내 요원을 추가 배치해 승차 위치를 안내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 누리집과

현수막 등을 통해 휴업 일정과 대체 교통수단도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현재 장암역은 7호선 종점으로, 도봉차량기지 안에서 간이역사 형태로 운영중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장암역을 연결하는 건설에 맞춰 현재 장암역을 철거하고 차량기지 안에 새 장암역을 지을 계획이다.

공사중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현재 장암역 출입구 옆 부지에 임시 장암역을 설치한다. 임시 장암역 개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간 휴업하고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희대, SoC 클럭회로 안정성·효율 개선

주파수 교란 때만 보조회로 작동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전자공학부 임영현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시스템온칩(SoC)에 쓰이는 클럭 회로의 안정성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높인 기술을 내놨다.

경희대는 임영현 교수 연구팀이 낮은 주파수의 기존 신호를 증폭해 통신 칩에 필요한 고주파 클럭을 만드는 회로인 위상 고정 루프(PLL)의 성능을 개선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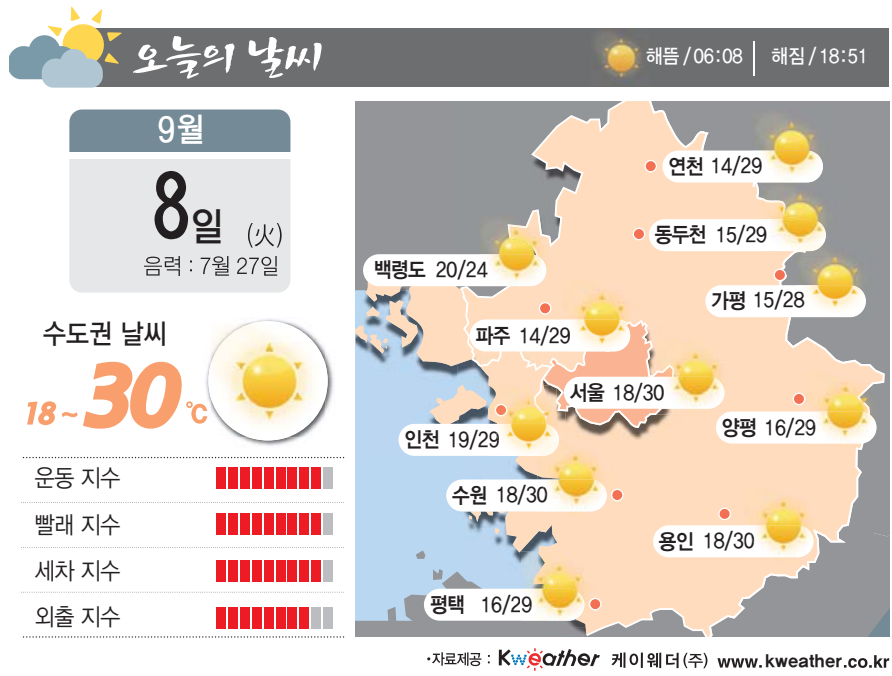
7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IEEE가 발간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분야 학술지 'IEEE Journal of Solid-State Circuits(JS SC)'에 게재됐다.

저잡음·저전력이 강점인 서브샘플링 PLL(SSPLL)은 6G·AI반도체의 클럭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원 잡음 같은 순간적 주파수 교란에도 동기(lock)가 쉽게 풀리고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회로(FLL)를 상시 작동

시키는 방식이 쓰였지만, 10GHz 이상의 고주파에서 쉽 없이 도는 회로가 오히려 SSPLL의 저전력 장점을 갉아먹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평소에는 최소 전력으로 대기하다가 주파수 교란이 감지될 때만 작동하는 '이벤트 구동 주파수 고정 루프(ED-FLL)'와 저전력 하모닉 락 검출기를 제안했다. 그 결과 대기 상태의 감지 전력을 기존 대비 최대 18분의 1 수준인 0.25mW로 낮추면서 락인 범위는 기존 주파수의 약 36배인 1.79GHz로 넓혔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콜레라 백신 2.1만회분 급파… 수인성 질병 확산 우려
▲美·이란 유조선 공격에 국제유가 ↑… 브렌트 97달러 넘어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이란은 실패한 국가”… 하르그섬 공격 이미지도 게시
▲젤렌스키·美특사 “3자회담 재개”… 돌파구 없었지만 외교 복귀

▲“日다카이치, 이달 개각서 고이즈미 방위상·모테기 외무상 유임”
▲튀르키예, 국방비 3년간 229% 인상 계획 밝혀